

KARA

news letter

News

김의수, 동산 100경기 출장 기록 달성
장순호, KARA 공인 100경기 출장 기록 달성
KARA 영상 교육 콘텐츠 공급 활성화
송도 시가지 경주장 FIA 그레이드4 공인 확정

Issues

아시아 모터스포츠 시리즈, 국내 상륙 가속화
현대팀, 세계 랠리 정상 WRC에서 첫 우승

Racing Team

쉐보레 레이싱팀

Interview

이준화, 경기장 안전 책임지는 그림쟁이

Notice

KARA 회원, FIA 연계 유럽 지역 호텔 할인 안내
KARA 공식 웹사이트 개편 안내
2015년 드라이버, 팀등록 라이선스 제도 개편 안내
KARA, 오피셜 대상 참가실적별 기념품 제공 안내

Gallery



- ◎ 역대 세 번째 ... 폴투윈으로 통산 32승 자축 ... 최고 기량 재확인
- ◎ KARA, 슈퍼레이스 6라운드 현장에서 축하 기념패 전달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변동식 협회장)는 9월13~14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열린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제6라운드에서 김의수의 대기록이 수립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의수의 100경기 돌파는 KARA 공인대회 참가 합산 기록으로, 2012년 이재우(43·쉐보레 레이싱), 2013년 조항우(39·아트라스BX)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달성되었다.

김의수는 지난 1993년 데뷔해 100경기에 나서는 동안 통산 32승, 폴포지션(예선 1위) 28회 등의 성적을 거뒀다. 3경기 당 1차례 꼴 우승으로 31%에 달하는 높은 승률이다.

내용도 알찼다. 김의수는 통산 32승 가운데 31승을 경기 참가 당시 기준 국내 최고 종목에서 달성해 가치 있는 기록을 남겼다.

김의수는 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시즌 중 한 차례 이상 1위를 기록하는 꾸준함을 과시해 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스타 드라이버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재 팀의 감독으로도 활약하며 지난 시즌 3개 종목에서 챔피언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의수는 “공인 100여 레이스 중 소중하지 않은 경기는 한 차례도 없었던 같다”며 “앞으로도 후배 드라이버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범이 되기 위해 해외 진출 모색 등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수는 지난 9월 14일 끝마친 슈퍼6000 클래스 결승에서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낙승을 거둬 100경기 출장 기록 수립을 자축했다.

- ◎ 12일 슈퍼레이스서 만 39세에 KARA 공인 100 레이스 돌파
- ◎ 1995 서킷 레이스 원년부터 16년간 정상급 드라이버로 꾸준한 활동
- ◎ 역대 네 번째 대기록 ... KARA 영암 현장에서 축하 기념패 등 전달

국내 정상급 드라이버 장순호(39·팀106) 역시 개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며 센추리 클럽에 가입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변동식 협회장)는 10월 11~12일 전라남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제7라운드에서 장순호의 대기록이 달성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00경기 돌파는 시리즈 별로 연 평균 7회 가량의 경기가 치러지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달성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기록이다.

개인 통산 100경기 돌파는 지난 9월 같은 기록에 먼저 도달한 김의수(42·CJ레이싱팀) 등 역대 단 네 차례 밖에 나오지 않았다.

장순호는 국내에 서킷이 처음 등장한 1995년부터 꾸준히 경기에 참가해 왔다. 개인 통산우승은 23회, 스물한 차례 예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99년에는 당시 한국모터챔피언십 최고종목인 투어링A 클래스에서 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하며 최정상급의 기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장순호는 현재 KARA의 공인을 받은 레이싱 스쿨을 운영하는 등 드라이버 교육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ARA 영상 교육 콘텐츠 공급 활성화

◎ 10월부터 유튜브에 온라인 드라이버 교육 채널 본격 운영

모터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질의 레이싱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이에 맞추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마련,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KARA는 10월, 대표적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에 'KARA Training 채널'(http://www.youtube.com/KARATraining)을 개설하고 점차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 공식 홈페이지내 KISS(KARA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 접속한 라이선스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강좌도 병행 운영된다.



이 채널들을 통해 앞으로 KARA가 제공할 교육 자료는 동영상에서부터 출판물,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제작된 고급 교육자료들을 한국어 자막, 더빙과 함께 제공하는 콘텐츠도 마련되었다.

그 중 미국 RRDC(Road Racing Drivers Club)가 FIA Institute 와 혼다의 후원을 받아 만든 온라인 드라이빙 교육 웹사이트인 'Safeisfast.com'과 제휴해 경험이 많은 해외의 현역 및 은퇴 드라이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우리글과 더빙으로 제공하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이 콘텐츠는 드라이빙 기술이나 차에 대한 구조뿐만 아니라, 커리어 관리, 심리학, 마케팅 및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레이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의문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이 사이트와 협약 하에 일부 동영상을 한국어로 번역, 자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번역 작업에는 기자, 오피셜, 드라이버 등 다양한 계층의 모터스포츠 팬과 관계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뜻이 깊다.

새 해에는 동영상 외 다양한 해외 출판물들도 번역되어 회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송도 시가지 경주장 FIA 그레이드4 공인 확정

- ◎ FIA 그레이드4 등급 최종 승인 완료 ... 국제 공인 경주장 증가
- ◎ 수도권 첫 번째 시가지 경주장, 모터스포츠 다양성 확보 기대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가 지난 7월 3일, 인천 송도 시가지 경주장의 FIA 그레이드 4(Grade 4) 공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도 시가지 경주장은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그레이드 1) 과 인제 스피디움(그레이드 2)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국제 승인 자격을 갖춘 서킷으로 등록되었다. 시가지 경주장으로는 1999~2003년 운영된 경남 창원외의 F3 경주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번 시가지 경주장 공인은 2013년부터 10개월여에 걸친 FIA 검수, 해외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KARA 현장 실사 등의 검증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1년간 자격이 유지된 뒤 KARA 검수를 통해 자격이 연장될 수 있다.

송도 시가지 경주장은 코스의 높낮이 차가 거의 없는 2.26Km의 시계 방향 주행 트랙이다. 전체 코스는 오른 방향 7개, 왼 방향 6개 등 총 13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송도 시가지 경주장은 지난 7월4~6일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KSF) 2014 시즌 개막전 및 '더 브릴리언트 모터페스티벌'을 통해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좁은 트랙의 폭, 급격한 커브 등 도심 서킷의 특성상 한층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졌다.

KARA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인 시가지 경주장의 등장으로 모터스포츠가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국내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향후 송도 시가지 경주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시리즈, 국내 상륙 가속화

◎ AFOS, Asian Le Mans Series, 한중모터스포츠페스티벌...국제 대회 개최 잇따라

최근 들어 다양한 카테고리의 해외 레이스가 국내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서킷이 등장하면서 아시아권에 기반을 둔 인터내셔널 모터스포츠 이벤트의 국내 상륙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과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된 해외 레이스는 AFOS(Asian Festival of Speed)와 아시아안 르망 시리즈(ALMS)가 대표적. AFOS에는 아우디 R8 LMS 컵과 GT 아시아 시리즈가 포함되었고, 페라리 챌린지와 포물러 마스터즈 차이나 시리즈(FMCS)는 아시아안 르망 서포트 레이스로 국내 레이싱팬들을 찾아왔다.

이처럼 다채로운 레이싱 이벤트가 우리나라 서킷에서 열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는 AFOS와 르망 시리즈는 상당한 파급력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아시아안 르망 시리즈는 2년 연속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막전을 치를 정도로 한국전에 비중을 두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해외 레이스 출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직 상당수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경욱(아우디 R8 LMS 컵), 김택성(아시아안 르망), 박성은(페라리 챌린지) 등이 참가한 인터내셔널 모터스포츠 이벤트는 미디어와 레이싱팬들로부터 집중조명을 받았다.

(주)슈퍼레이스가 주관한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색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경주를 한 자리에서 치른 올해 대회는 9월 21일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남 목포 평화광장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뜨겁게 수놓았다. 특히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CTCC) 5라운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로 호평을 들었다. 양국 드라이버들의 실력을 겨룬 우호전도 특별한 볼거리. 국내외 팬들에게 모터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준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열려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MBC와 중국 CCTV, 상하이TV, 광동TV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 중계된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한중 통합 시리즈 운영이라는 로드맵을 선보인 만큼 아시아 지역 인기 자동차경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땀 셈이다.

이 같이 다양한 국제 대회가 국내 서킷에서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선진 레이스를 통한 국내 모터스포츠의 발전과 국내 선수들의 해외 레이스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현대팀, 세계 랠리 정상 WRC에서 첫 우승

2014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독일 랠리는 현대헬월드랠리팀(현대 쉘 WRT)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2003년 WRC에서 잠정 철수한 뒤 11년 만에 복귀한 세계 정상 랠리 무대에서 당당히 포디엄 정상에 우뚝 섰기 때문이다.

현대 쉘 WRT에 첫 우승컵을 안긴 드라이버는 티에리 누빌. 지난해 드라이버즈 2위 티에리 누빌은 현대 i20 경주차를 타고 WRC에서 개인통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현대의 월드 랠리 첫 우승은 원투승으로 더욱 빛났다. 다니 소르도가 티에리 누빌에 이어 2위 기록을 작성한 덕분이다.

올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대 쉘 WRT의 우승을 점치는 이들은 드물었다. 폭스바겐과 시트로엥, M-스포트(포드) 등 WRC 강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WRC 정상 클래스에서 오랜만에 복귀한 현대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까닭이다. 이 같은 우려는 2014 시리즈 1, 2전에 그대로 드러났다. 현역 최강 세바스티앙 오지에와 야리-마티 라트발라가 폭스바겐의 명성을 입증한 반면, 10위권 밖으로 현대는 다소 힘겨운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미셸 난단이 이끄는 현대 쉘 WRT는 시리즈 3전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멕시코 비포장 랠리 코스에서 티에리 누빌이 3위 포디엄에 올라갔고, 현대 i20 WRC를 타고 나온 크리스 애트킨스도 7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폴란드 랠리에서 다시 한 번 3위 시상대를 밟은 티에리 누빌은 시리즈 9전 독일 랠리에서 현대 모터스포츠 도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새겼다. 이전까지 8전 우승컵을 독식한 폭스바겐이 부진한 틈을 비집고 1, 2위 트로피를 거머쥐는 역주를 펼친 것이다.

현대 쉘 WRT의 1승과 원투 피니시는 매우 귀하게 평가할 만하다. 최근 2년 동안 WRC에서 우승한 세 번째 워크스팀으로, WRC 출전 57경기(F2 클래스 제외) 만에 거둔 값진 수확이기 때문이다. 1973년부터 42년 동안 이어진 WRC 역사에서 1승 이상을 기록한 카메라커는 20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WRC 최고 클래스에 뛰어든 현대는 독일 랠리에서 21번째 우승 카메라커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도 거두었다. 예상보다 탄탄하고 빠르게 WRC 재진입에 성공한 현대. 현재까지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현대헬월드랠리팀은 세계 정상 랠리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쉐보레(Chevrolet) 레이싱팀은 지난 9월13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 파크에서 열린 '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결승전에서 우승을 거두며, 대회 3연승을 기록, 국내 최초 팀 통산 여섯 번째 시즌 종합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8년 전통의 명문 쉐보레 레이싱팀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메이커 카레이싱팀으로 2007년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창단하여 출범한 이후, 창단 원년 종합우승에 이어 2011년까지 국내 최초 종합 우승 5연패, 11연승을 기록한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단 기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 2월, 배우 겸 카레이서인 안재모 선수를 새로 영입하여 국내 모터스포츠의 거장 이재우 감독과 함께 투 톱 체제를 완성하였고, 전략적인 레이스 운영을 바탕으로 GT클래스(배기량 5000cc 이하)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쉐보레 레이싱팀은 쉐보레 차량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재우 감독의 관록, 안재모 선수의 패기, 그리고 숙련된 미케닉팀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진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미래 한국 모터스포츠의 주춧돌이 될 기술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또한, 쉐보레 레이싱팀은 모터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스포츠로 접할 수 있도록 한국지엠과 함께 매년 다양한 모터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레이싱 팬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며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쉐보레 레이싱팀

국내 유일의 카 메이커팀, 눈부신 성과 거둬

이재우 감독

개인 통산 46회 우승, 8회 종합 챔피언 "모터스포츠계 살아있는 전설"
개인통산 4연패, 쉐보레 레이싱팀의 이재우 선수는 1993년 레이스에 데뷔했다. 2007년 현 쉐보레 레이싱팀 창단시 선수로 합류, 2009년부터는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며 '티브링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종합 챔피언 4연패 및 팀 통산 5연패, '한국모터스포츠 대상'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드라이버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안재모 선수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기본기가 탄탄한 드라이버"
2002년 연예인 레이싱팀에 입단하여 2009년까지 투어링 클래스에서 다수의 우승을 기록한 연예인팀의 에이스로 2011년 슈퍼6000클래스에 출전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2014시즌 쉐보레 레이싱팀에 입단하면서 한층 몰론 레이싱을 펼치고 있고 4라운드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경기장 안전 책임지는 그림쟁이 이준화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리커버리(안전) 오피셜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화입니다. 경기 때에는 주로 구난차량 운전 및 사고 차량 구난을 맡고 있습니다.

Q. 오피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평소에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모터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모터스포츠 매력에 푹 빠져 오피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모터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무래도 스피드가 아닐까요? 일반公道에서 볼 수 없는 레이싱카들의 엄청난 스피드와 절묘한 코너링, 각 팀간의 경쟁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Q. 현재 소속된 오피셜 활동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리커버리(안전)팀 오피셜은 경기장 내에서 안전 부문 최일선에서 뛰는 인력들입니다. 경기 중 사고 차량을 구난하는 것을 기본으로 드라이버를 구조하고 화재 처리를 하는 등 위험 상황에서 일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이 생명과 연관될 수 있는 일인 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 없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오피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뜻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아무래도 2012년 F1 JCB 커뮤니케이터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평소에 다루어보지 못한 장비를 운용해 본 경험, 그리고 F1 머신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Q. KARA 공식 오피셜 교육 교재인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한 이후 최근 KARA 드라이버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를 제작에 도움을 주셨어요, 현재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네, 현재 그래픽 콘텐츠 제작 및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F1 경기에서 간단한 메뉴얼 및 아이콘 등을 안전위원장님 제안으로 제작하면서 인연이 되어 여러 모터스포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모터스포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현재 대학 애니메이션 학부 및 컴퓨터 그래픽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2D, 3D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3D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쟁이지요 ^^

Q. 오피셜로서 본인의 향후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지긋한 나이가 되더라도 몸 건강히 안전하게 오랫동안 오피셜로서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슈퍼레이스, KSF등 여러 국내 및 국제 경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반에는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모터스포츠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듯 합니다.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A. 수많은 부품이 맞물려 제대로 돌아야 자동차도 움직이듯이 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대한민국 오피셜 화이팅~~~"

KARA 회원, FIA 연계 유럽 지역 호텔 할인 안내

국제자동차연맹(FIA)과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IHG)의 제휴에 따라 대한민국 ASN인 KARA의 회원들도 다른 FIA 클럽 및 멤버들과 함께 유럽 지역 500여 IHG 산하 호텔에서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Fantastic room rates for FIA members.

Benefits:

금/토/일 30% 할인

- Crowne Plaza® Hotels & Resorts
- Hotel Indigo®
- Holiday Inn® Hotels
- Staybridge hotels
- Holiday Inn Express® Hotels

금/토/일 20% 할인(조식포함)
InterContinental® Hotels & Resorts

유럽에 있는 모든 IHG 호텔
주중(월~목) 10% 할인



1) 혜택 기한: 1차 2015년 1월 3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 추후 연장 기간 별도 공지 예정

이메일 kara@kara.or.kr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할인 가능 호텔 및 위치를 검색하고, 직접 예약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을 개별 전달해 드립니다.

KARA 공식 웹사이트 개편 안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식 웹사이트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회원과 협회 간의 소통 및 정보교환이 보다 활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메뉴 구조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모바일에서도 높은 접근성과 통일성 있는 화면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KARA 웹사이트는 올해 11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2015년 드라이버, 팀 등록 라이선스 제도 개편안 안내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2015년 드라이버 라이선스 제도 및 팀 등록 규정 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개정안은 라이선스 자격을 명확히 정의하여 입문 단계와 프로 선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협회 공인 팀 및 드라이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규정에서 벗어난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고 팀 추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입문 단계와 프로 선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2015년 KARA 드라이버 라이선스 개정 안

구분	기준	개정 안
공통	국내 도로교통법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해당하는 국제 면허증 소지자 (변경 없음)	
KARA A	- KARA에 가입한 공인 팀과 공인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라이선스 승급절차를 준수하여 KARA 사무국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자 - 국제 카트 선수 라이선스 B 이상 소지자로서 KARA 사무국에 해당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KARA 사무국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	KARA B 소지자 중 - 24개월 내 공인경기 5회 이상 참가한 자 (자동발급) 또는 - KARA 등록 팀의 교육훈련을 받고 주행기록 300km을 증명한 자 (특별승급)
KARA B	- KARA의 공인 팀, 공인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공인 경기장에서 200km 주행 훈련을 입증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KARA 공인의 아마추어 경기 또는 일반인 참가 대상 경기의 참가자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 국제 카트 C 시니어 라이선스 소지자로서 KARA 사무국에 승인을 받은 자	KARA C 소지자 중 - 24개월 내 공인경기 4회 이상 참가한 자 (자동발급) 또는 - KARA 등록 팀의 교육훈련을 받고 주행 기록 200km을 증명한 자 (특별승급)
KARA C	- KARA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 KARA 공인 짐카나(슬라럼)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 KARA 공인 레이싱 팀의 추천서를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공인 경기장에서 100km 주행 훈련을 입증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KARA가 인정하는 라이선스 강습회를 수강한 자 - 국내 KART A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	- KARA 신규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이수 - KARA 공인 짐카나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 2015년 KARA 공인 레이싱 팀 등록 및 자격 개정 안

- 1) 기존 규정에 대한 팀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 공인 레이스 참가를 팀 활동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함.
 - 2) 2015년부터 신규 팀은 1년 유효기간으로 등록, 별도 등록비 없이 매년 회비 500,000원으로 등록이 가능.
 - 3) 공인 팀 중에서도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이 가능한 팀 자격 제한. 팀 내 드라이버 국내 A 라이선스 소지자가 2명 이상 있어야 인정함. 위탁 교육 가능
 - 4) 기존 영구 팀에 대한 입장
 - ① KARA 설립을 도운 팀 총 31개(재산권 아닌 명예적 의미, 명의변경이나 상속 불가)
 - ② 기타 영구팀 (명의 변경은 가능, 2년 이상 팀 활동이 없는 경우 자격취소)
 - ③ 휴면팀 (명의 변경은 가능, 2014년 활동이 없으며, 2015년 말까지 활동이 없는 경우 자격취소)
- ※ 본 개정안은 수정,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있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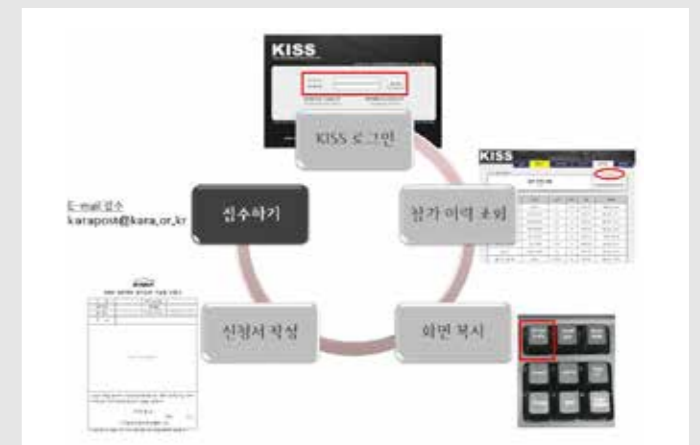
KARA, 오피셜 대상 참가실적별 기념품 제공 안내

KARA 온라인 회원 관리 시스템인 KISS(KARA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통해 경기에 참가한 오피셜을 대상으로 참가 횟수에 따른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벤트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해주신 공인경기 10회 참가 오피셜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피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공인경기 10회 참가 오피셜 고희진, 강성욱, 김민수, 김햇살, 장덕영, 정대준

현재 이벤트 2차 접수 기간(10월 27일까지) 중에 있으며, 3차 접수 기간은 11월 27일까지입니다. 각 접수 기간 동안 경기 참가 횟수 10회, 15회, 20회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CIK-FIA 한국 선수 파견

2014 CIK-FIA Karting Academy Thropy 한국대표로 선발된 김준서 드라이버가 독일에서 열리는 2Round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하던 날, 협회에서 공항에 방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하였습니다.



무한도전 멤버 KARA 라이선스 취득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개막전을 함께 한 MBC 무한도전 레이싱팀의 유재석, 노홍철, 정준하, 하하 드라이버가 공식 절차를 밟아 KARA 등록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2014 KARA모터스포츠인의 밤 일정 안내

한해 대한민국 자동차경주를 결산하는 축제, 2014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행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날짜 :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 장소 : 양재동 엘타워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회원사



National Events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 www.superrace.co.kr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 www.ksfrace.com
 엑스타 슈퍼챌린지 / www.superchallenge.co.kr
 코리아카트챔피언십(KKC) / www.rotaxkorea.com



KARA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ARA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원하는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의견뿐 만 아니라 자유로운 비평과 건의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karapost@kara.or.kr



KARA 뉴스레터 통권 05호

발행인 변동식

발행처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전화 02.424.2951 팩스 02.424.2953

공식 웹사이트 www.kara.or.kr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ramotorsports

